

참고문헌

권미수, 남길우, 서보경. (2014).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박효수, 전종수, 남길우, 고영삼, 엄나래. (2013).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미디어보유와 사용행태 변화.

편집위원 류승완, 김동화, 공지훈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북행복 BRIEF

제5호 2015. 10. 3

법 인 명 칭 (재)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재)경북행복재단 편찬부
주 소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T E L 054-710-8814
홈페이지 www.ghf.or.kr
연구 책임 김성훈(경북행복재단 연구원)
공동 연구 장승욱(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난숙(경북행복재단 연구원)

경상북도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실태

1. 스마트폰 보급 현황

■ 스마트폰 보급 실태

- 국가별 스마트폰 보급률을 살펴보면, 2013년에 한국(1위, 73%), 노르웨이(2위, 63.7%), 스웨덴(3위, 61.0%)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 2017년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8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실태 파악이 요구됨.
- 특히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게 되는 초등학생의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휴대폰 이용 습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표 1 〉 2011-2017년 대륙, 국가별 스마트폰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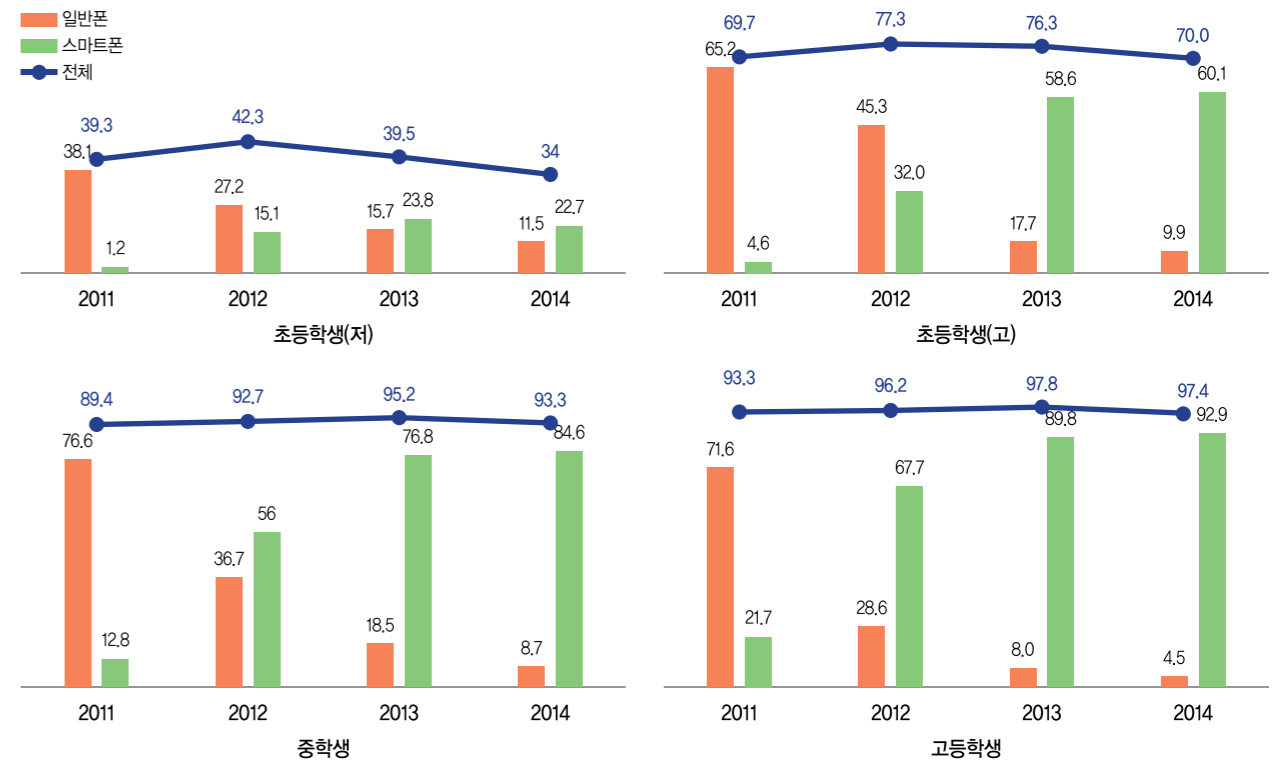
	2011	2013	2015	2016	2017
북미	39.0%	56.3%	69.1%	74.1%	78.3%
미국	39.1%	56.8%	70.1%	75.3%	79.7%
캐나다	38.0%	51.0%	59.5%	62.1%	65.5%
서유럽	28.7%	47.4%	66.2%	72.4%	77.1%
노르웨이	46.4%	63.7%	85.8%	94.4%	97.6%
스웨덴	44.0%	61.0%	75.0%	81.0%	86.7%
영국	44.1%	60.4%	71.7%	76.6%	80.9%
덴마크	39.0%	56.0%	78.0%	86.5%	92.7%
네덜란드	36.7%	53.8%	75.9%	84.5%	92.6%
핀란드	33.0%	50.0%	67.0%	75.5%	83.2%
스페인	21.7%	47.5%	65.9%	70.0%	73.1%
프랑스	24.5%	45.0%	66.0%	72.0%	77.5%
독일	24.5%	42.0%	64.8%	73.0%	80.0%
이탈리아	24.0%	41.0%	61.0%	66.5%	68.0%
중앙&동유럽	18.1%	37.9%	57.3%	64.3%	69.7%
러시아	15.0%	35.0%	55.0%	63.0%	67.0%
라틴아메리카	12.1%	36.9%	40.2%	45.7%	51.2%
멕시코	15.0%	39.0%	52.0%	58.0%	64.0%
아르헨티나	17.0%	29.0%	41.0%	45.0%	49.0%
브라질	10.2%	20.8%	33.1%	37.4%	42.5%
아시아·태평양	16.5%	30.5%	38.3%	40.8%	43.0%
한국	45.0%	73.0%	83.0%	84.0%	84.8%
오스트레일리아	40.0%	66.0%	78.0%	79.0%	80.0%
일본	18.0%	49.0%	74.4%	78.9%	79.9%
중국	24.0%	40.0%	45.0%	47.0%	49.0%
인도네시아	9.0%	24.0%	40.0%	47.0%	53.0%
인도	5.0%	14.0%	25.0%	28.6%	32.0%
중동&아프리카	7.7%	21.3%	30.9%	34.4%	37.0%
전세계	17.8%	32.5%	42.9%	46.4%	49.3%

출처 : eMarketer

■ 초등학생 스마트폰 보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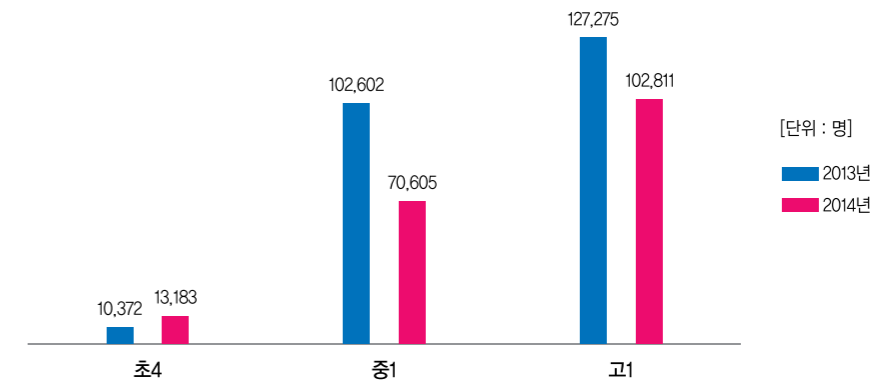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의 '미디어보유와 사용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경우 2014년에 10명 중 6명꼴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84.6%, 고등학생 92.9%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 그림 1 〉 아동 및 청소년의 휴대폰 및 스마트폰 보유 현황

- 2013년과 2014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스마트폰 위험군은 각각 10만 2천 602명에서 7만 605명으로, 12만 7천 275명에서 10만 2천 811명으로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 4학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013년 1만 372명에서 2014년 1만 3천 183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초등학교 스마트폰 위험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박효수 외, 2013; 권미수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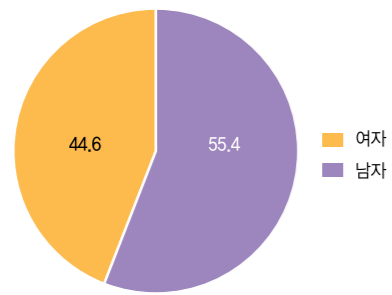
〈 그림 2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2. 경상북도 초등학교 학생 스마트폰 사용실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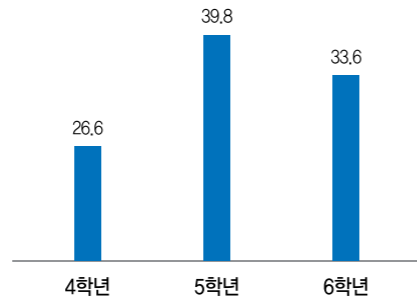
-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18일에서 5월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함.
- 설문지역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인구 20만 미만 도시(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영주시, 문경시, 영천시), 인구 10만 이상 군(칠곡군), 인구 10만 미만 군(칠곡군을 제외한 군지역) 지역별 1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4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함.
- 시 지역은 각각 310부, 군 지역은 각각 210부로 총 1,040부를 배부하여 1,036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30부를 제외한 1,006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음.

■ 초등학교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

-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 55.4%(557명), 여학생 44.6%(449명)로 남학생의 비율이 1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은 5학년이 39.8%(40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학년이 33.6%(338명), 4학년이 26.6%(268명)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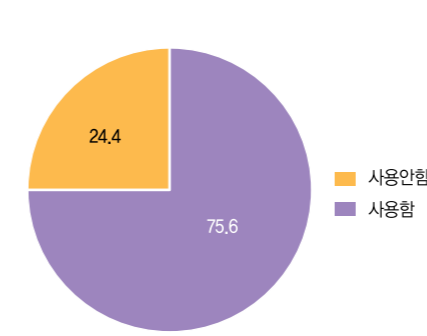


〈그림 3〉 조사 대상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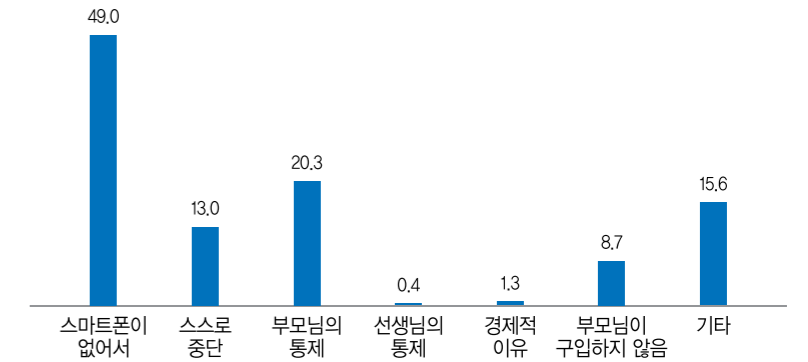


〈그림 4〉 조사 대상자의 학년

-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경우가 75.6%(761명),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4.4%(245명)로 나타나, 초등학교 학생의 과반수 이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미 사용자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없어서가 49.0%(114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통제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0.3%(47명), 기타 15.6%(36명), 스스로 중단한 경우가 13.0%(30명), 부모님이 구입해 주지 않아서 8.7%(20명), 경제적 이유가 1.3%(3명), 선생님의 통제가 0.4%(1명)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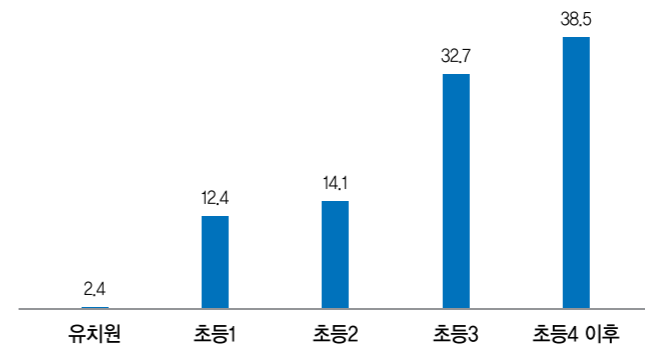


〈그림 5〉 스마트폰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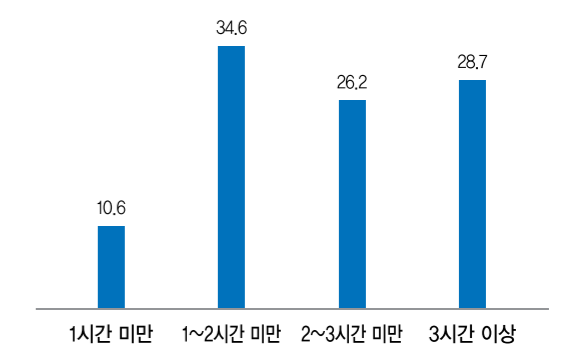


〈그림 6〉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사용한 경우가 38.5%(293명)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32.7%(249명), 2학년이 14.1%(107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약 60%는 3학년 이하 때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사용이 34.6%(255명)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이 28.7%(212명), 2~3시간 미만이 26.2%(193명)의 순으로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54.9%로 과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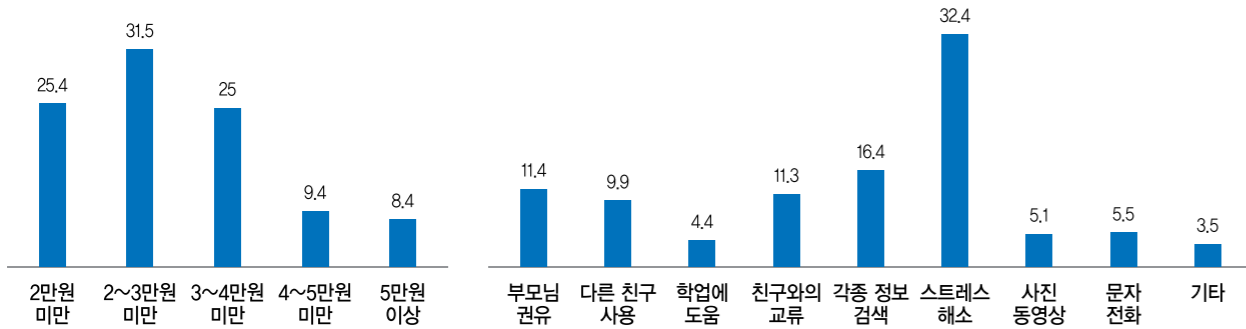


〈그림 7〉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기



〈그림 8〉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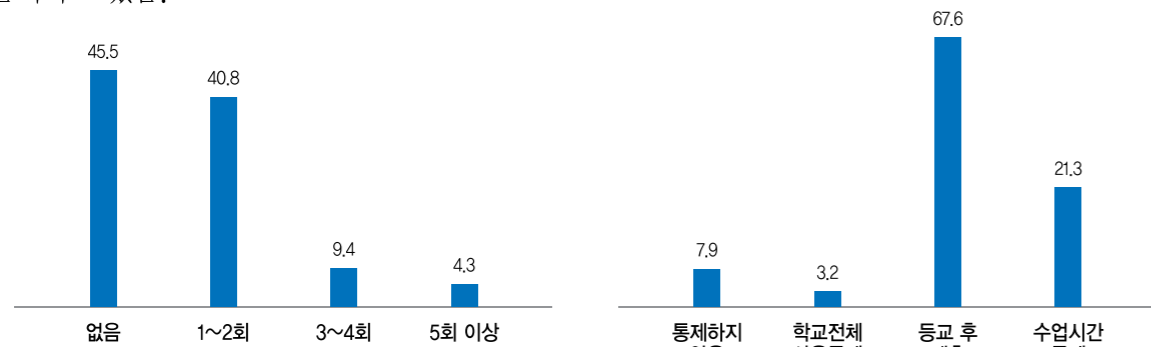
- 지난 한달 조사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요금은 2~3만원 미만이 31.5%(218명)로 가장 많았으며, 2만원 미만이 25.4%(176명), 3~4만원 미만이 25.0%(173명)로 나타남.
- 스마트폰 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음악 감상과 게임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32.4%(24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종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가 16.4%(122명), 부모님의 권유가 11.4%(85명),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귄 수 있기 때문이 11.3%(84명)로 나타남.



〈그림 9〉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요금

〈그림 10〉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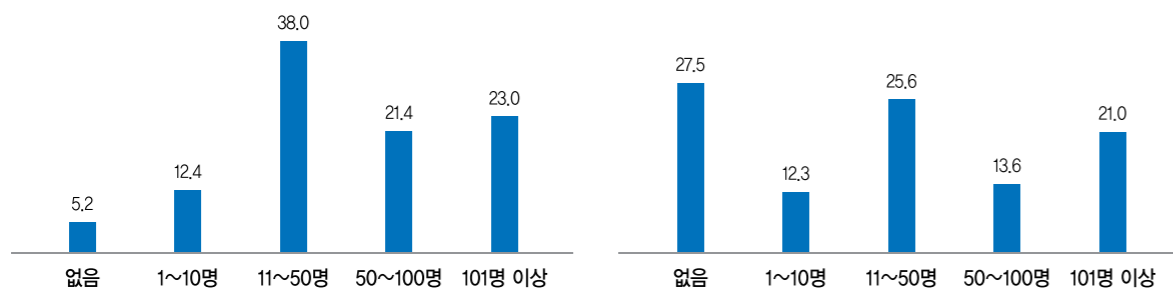
- 지난 1주일 동안 부모로부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통제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45.5%(345명)로 가장 많았고, 1~2회 통제 받는 경우는 40.8%(310명), 3~4회는 9.4%(71명)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선생님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등교 후 제출이 67.6%(505명)로 가장 많았고, 수업 중에만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21.3%(159명)로 90% 이상이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림 11〉 부모의 통제 경험

〈그림 12〉 학교에서의 통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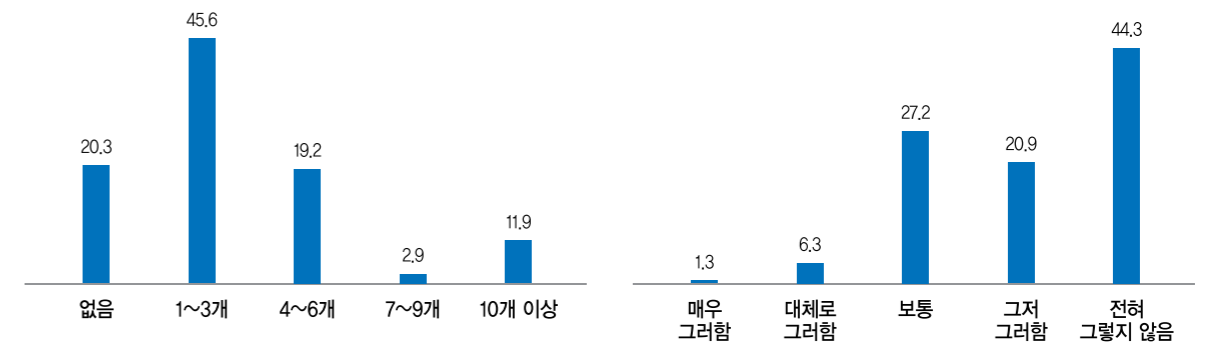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친구 수는 11~50명이 38.0%(26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명 이상이 23.0%(160명), 51~100명이 21.4%(149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카카오톡 친구 수는 없음이 27.5%(184명)로 가장 많았고, 11~50명이 25.6%(171명), 101명 이상 21.0%(140명)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카카오톡 친구 수

〈그림 14〉 카카오톡 친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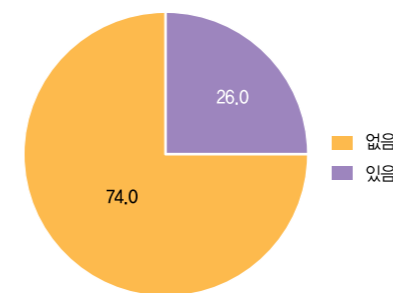
- 단체 카카오톡 방 수는 1~3개가 45.6%(330명)로 가장 많았고, 4~6개가 19.2%(139명)로 나타난 것에 반해, 없는 경우가 20.3%(147명)로 높게 나타남.
- 친구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SNS·채팅에서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면, 55.7%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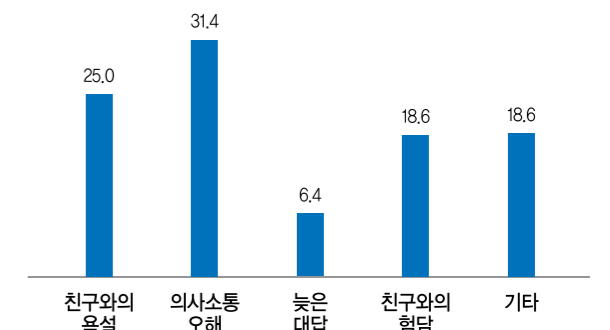
〈그림 15〉 단체 카카오톡 방 수

〈그림 16〉 채팅 중 욕설, 비속어 사용 정도

- 친구와 SNS·채팅 중에 다툼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6.0% (194명)로, 약 4명 중 1명은 친구와 다툼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툼 이유를 살펴보면, 잘못 오해한 경우가 31.4%(5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한 경우가 25.0%(47명), 내가 없는 동안 나를 헐뜯은 경우 등이 18.6%(35명), 빨리 대답을 안해서가 6.4%(12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밖에 친구가 거짓말을 해서, 채팅방에 계속 초대를 해서, 게임문자를 계속 보내서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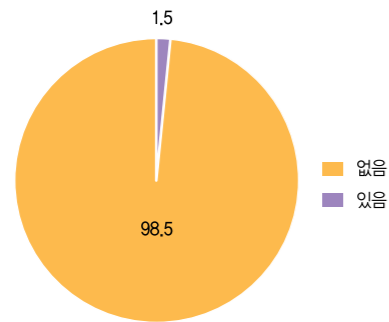


〈그림 17〉 채팅 중 친구와 다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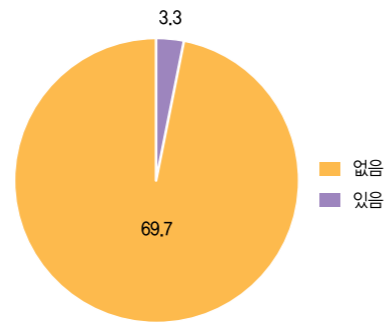


〈그림 18〉 채팅 중 친구와 다툼 이유

- 최근 1개월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1명)는 다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개월간 도박(고스톱, 카드 등)게임을 다운 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3.3%(25명)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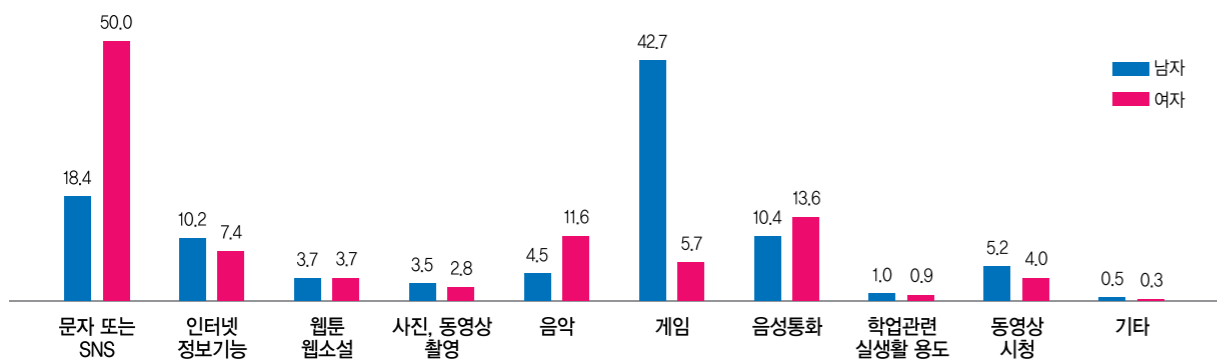
〈 그림 19 〉 음란물 다운로드 경험



〈 그림 20 〉 도박게임 다운로드 경험

■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기능

-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기능을 1순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게임인 경우가 42.7%(17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자·SNS가 18.4%(74명), 음성통화가 10.4%(42명), 인터넷 정보기능 10.2%(41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여자는 문자·SNS가 50.0%(17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성통화가 13.6%(48명), 음악청취가 11.6%(41명), 인터넷 정보기능이 7.4%(26명)의 순으로 나타나, 남자 집단에서는 게임, 여자 집단에서는 문자·SNS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림 21 〉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기능(1순위)

■ 생활 상황 속 스마트폰 사용 현황

- 생활 상황 속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평균값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2.71, 자기 전에 누워서 2.2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식사 중에는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표 2 〉 생활 상황 속 스마트폰 사용 현황

(단위 : 명,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1 식사 중에	539 (71.7)	95 (12.6)	97 (12.9)	14 (1.9)	7 (0.9)	1.48	.855
2 화장실을 사용할 때	375 (49.9)	111 (14.8)	170 (22.6)	68 (9.0)	28 (3.7)	2.02	1.193
3 자기 전에 누워서	360 (47.9)	86 (11.4)	138 (18.4)	124 (16.5)	44 (5.9)	2.21	1.344
4 부모님과 차를 타고 이동할 때	213 (28.3)	77 (10.2)	246 (32.7)	146 (19.4)	70 (9.3)	2.71	1.312
5 걸을 때(음악청취 포함)	355 (47.2)	119 (15.8)	137 (18.2)	97 (12.9)	44 (5.9)	2.14	1.296

■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 ¹⁾²⁾

-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된다가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가 2.00,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가 1.95,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가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3 〉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

(단위 : 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401 (53.3)	284 (37.7)	61 (8.1)	7 (0.9)	1.57	.681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465 (61.8)	230 (30.5)	47 (6.2)	11 (1.5)	1.48	.686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400 (53.1)	245 (32.5)	91 (12.1)	17 (2.3)	1.63	.781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329 (43.7)	254 (33.7)	145 (19.3)	25 (3.3)	1.82	.855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 (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400 (53.1)	238 (31.6)	101 (13.4)	14 (1.9)	1.64	.782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578 (76.6)	155 (20.5)	15 (2.0)	7 (0.9)	1.27	.542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537 (71.1)	163 (21.6)	45 (6.0)	10 (1.3)	1.37	.658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316 (41.9)	254 (33.6)	69 (9.1)	116 (15.4)	2.00	.926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289 (38.3)	247 (32.8)	188 (24.9)	30 (4.0)	1.95	.889
10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226 (29.9)	397 (52.6)	52 (6.9)	80 (10.6)	1.72	.910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293 (38.9)	256 (34.0)	164 (21.8)	41 (5.4)	1.94	.906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339 (45.0)	245 (32.5)	148 (19.6)	22 (2.9)	1.81	.852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된다.	255 (33.8)	293 (38.8)	96 (12.7)	111 (14.7)	2.01	1.022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583 (77.2)	138 (18.3)	24 (3.2)	10 (1.3)	1.29	.590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327 (43.3)	258 (34.2)	147 (19.5)	23 (3.0)	1.82	.848

(1) 초등학생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의 차이

- 학년과 성적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의 차이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p < .001$). 사후검증 결과, 6학년과 5학년은 4학년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로 성적에 대해 못한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잘한다고 평가하는 집단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표 4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학년	4학년 ^A	163	22.20	6.885	26.915**	A < B A < C
	5학년 ^B	294	24.98	7.167		
	6학년 ^C	298	27.35	7.569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잘함 ^A	227	23.34	6.493	18.461**	A < C A < B B < C
	보통 ^B	454	25.69	7.347		
	못함 ^C	71	29.17	9.700		

** $p < .01$, *** $p < .001$

(2) 스마트폰 이용 실태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의 차이

- 사용 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01$),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체 카카오톡 방 수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1~3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보다 4~6개,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다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 채팅 중 비속어 사용 여부에 따른 과다사용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채팅 중 친구와 다툼 여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1$), 친구와 다투는 경우가 다투지 않는 경우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 사용 시 부모통제 여부에 따른 과다사용 정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 < .001$), 부모통제 횟수가 많을수록 없는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5 〉 스마트폰 이용 실태에 따른 과다사용 정도의 차이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A	77	20.64	6.154	42.048***	A < B
	1~2시간 미만 ^B	253	23.22	6.439		A < C
	2~3시간 미만 ^C	192	25.74	7.166		A < D
	3시간 이상 ^D	210	29.31	7.743		B < C B < D C < D
단체 카카오톡 방 사용 수	없음 ^A	145	24.52	7.471	5.005**	B < C B < E
	1~3개 ^B	327	24.54	7.347		
	4~6개 ^C	139	26.99	7.213		
	7~9개 ^D	20	25.40	5.888		
	10개 이상 ^E	86	27.60	8.688		
채팅 중 비속어 사용 여부	사용함	257	28.68	7.275	9.455***	
	사용하지 않음	484	23.45	6.935		
채팅 중 친구와 다툼 여부	없음	549	23.99	7.166	-8.430***	
	있음	190	29.08	7.244		
부모 통제	없음 ^A	339	21.71	5.952	81.555***	A < B A < C A < D B < C B < D
	1~2회 ^B	308	26.95	6.788		
	3~4회 ^C	71	31.30	7.838		
	5회 이상 ^D	33	34.36	6.968		

p<.01, *p<.001

■ 부모양육 태도

- 부모양육 태도를 살펴보면, 부모님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라”는 말보다 “~해 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뿌듯함을 느끼게끔 격려해 주신다가 4.11, 부모님은 내 일은 나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신다가 3.83, 부모님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가 3.79의 순이었음.

〈 표 6 〉 부모양육 태도

(단위 : 명, %)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1 부모님은 나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씀해 주신다.	69 (7.0)	70 (7.1)	328 (33.1)	238 (24.0)	285 (28.8)	3.61	1.173
2 부모님은 나의 주장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50 (5.1)	55 (5.6)	291 (29.4)	281 (28.4)	313 (31.6)	3.76	1.109
3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뿌듯함을 느끼게끔 격려해 주신다.	29 (2.9)	32 (3.2)	206 (20.8)	259 (26.2)	464 (46.9)	4.11	1.029
4 부모님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39 (3.9)	58 (5.9)	304 (30.4)	261 (26.4)	327 (33.1)	3.79	1.088
5 부모님은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아도 항상 관심을 주신다.	38 (3.9)	26 (2.6)	135 (13.7)	531 (53.9)	256 (26.0)	3.48	1.186
6 부모님은 내 일은 나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신다.	30 (3.0)	83 (8.4)	244 (24.7)	300 (30.4)	330 (33.4)	3.83	1.078
7 부모님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라”는 말보다 “~해 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26 (2.6)	38 (3.9)	135 (13.4)	256 (26.0)	531 (52.8)	4.25	1.004
8 부모님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말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잘 타이르신다.	103 (10.4)	114 (11.6)	326 (33.0)	220 (22.3)	224 (22.7)	3.35	1.238
9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격려를 해 주신다.	114 (11.6)	168 (17.0)	367 (37.2)	168 (17.0)	170 (17.2)	3.11	1.214
10 부모님은 나에게 “~하면 안 돼” 또는 “~하면 못써” 등의 말씀을 안 하신다.	82 (8.3)	100 (10.1)	363 (36.8)	20.6 (20.9)	236 (23.9)	3.39	1.165

■ 스마트폰 이용 실태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

-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사후검증 결과, 1시간 미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부모님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 채팅 중 비속어 사용 여부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p<.001),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보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팅 중 친구와 다툼 여부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를 살펴보면, 친구와 다투지 않는 학생들이 다투는 학생들보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표 7 〉 스마트폰 이용 실태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의 차이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A	78	39.64	6.128	10.674***	B < A C < A D < A D < B
	1~2시간 미만 ^B	250	37.14	5.956		
	2~3시간 미만 ^C	190	36.00	6.359		
	3시간 이상 ^D	210	35.31	6.179		
채팅 중 비속어 사용 여부	사용함	258	35.13	6.237	-4.893***	
	사용하지 않음	479	37.45	6.100		
채팅 중 친구와 다툼 여부	없음	547	37.42	6.066	6.265***	
	있음	188	34.23	5.933		

p<.01, *p<.001

3. 정책제언

1)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장 교육 강화

- 스마트폰의 긍정적 기능 즉, 친구들과의 돈독함 강화, 관심 있는 정보 획득,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반면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스마트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용자 스스로가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2) 부모교육 강화

- 조사 결과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부모 통제경험이 많은 경우가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게 나타남. 이는 장시간의 사용으로 인한 부모의 통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꾸중 또는 강압적 통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부모의 강압적 통제와 꾸중보다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모교육 필요.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녀와의 스마트폰 관련 대화, 개인정보보호방안, 유해콘텐츠차단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지침서 발간이 필요함.

3) 스마트폰 이별 주간 지정

- 본 조사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28.7%로 나타남. 초등학교 과다사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방법의 하루 30분 사용하기, 1시간 사용하기로는 초등학교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막을 수 없음.
- 이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1~2주일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별 주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 기간 동안 학교 내에서는 스마트폰 없이도 흥미 있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예방교육의 차별화

- 본 조사 결과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SNS 등과 같은 메신저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분야가 다를 수 있음. 이에 현재의 남녀 통합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남녀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집단적인 교육보다는 소규모 즉 10~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실태조사의 특성 상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과다사용으로 정의하였음.

2) 역문항의 경우 해석은 기준문항에 맞추어 설명하였음.